

영상번역 연구모델에 대한 소고

오 미 형
(동국대-서울)

1. 서론

텍스트, 텍스트를 둘러싼 텍스트외적 요소, 텍스트 생산 및 수용과 관련된 시스템과 문화 및 행위자 등 번역학 연구는 텍스트 자체에서 보다 넓은 영역으로 지평을 넓혀왔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의 연구와 논의 역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학문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번역학은 번역학 연구 자체에 대해 반추하고 점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는 연구 성과물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성숙기에 접어든 학문으로써 과거를 반추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다니엘 질(Gile)을 비롯한 해외 학자들의 연구와 최근 국제 학술지 『Perspectives』가 번역학 연구 성과물 대상의 정량적 연구에 한 호를 할애한 것을 보아도 번역학 내부에서 번역학 연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고조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관심은 국내에서도 번역학 연구 동향에 대한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번역학의 한 하위 분야인 영상번역, 보다 구체적으로는 영상번역의 연구모델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영상번역은 윌리엄스와 체스터만(Williams & Chesterman 2002)의 번역학 연구 분야 중 하나의 독립분야로 분류될 만큼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기준 16,000건 이상의 번역학 연구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Translation Studies Abstracts(TSA)의 번역학 분야 분류에서도 영상번역은 두 번째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룹에 속하며, 해당 그룹 안에서도 연구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분야이다(Zanettin, Saldanha & Harding 2015: 178). 국내에서도 1999년부터 2013년 사이 영상번역에 대한 학술지 논문이 82편에 달할 만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조성은 2014: 211). 다시 말해, 다양한 번역학 연구 하위 분야 중 영상번역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영상번역 연구의 여러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으나,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 차례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고¹⁾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의 가능성 모색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는 연구모델에 중점을 두고 영상번역의 기존 연구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동향에 대한 연구, 즉 번역학 연구를 조망한 국내 연구를 살펴 그 의의를 확인한 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대해 설명하고 영상번역에 대한 국내 석·박사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모델을 분석하고자 한다. 학위 논문을 연구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겠으나, 영상번역에 대한 국내 학술지 논문은 이미 연구 주제 등이 분류된 바 있고(조성은 2014), 본 연구의 목적이 이상적인 연구모델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국내 영상번역 연구모델의 현재를 조명하고 반추하는 데 있으므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현행 연구 지형의 공백 혹은 부족한 점이 언급되었으나, 이는 개별 연구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자를 포함해 앞으로 영상번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고민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1) 조성은(2014)은 영상번역 연구 주제를 언어학적 분석, 영상텍스트 특징분석, 번역학 이론적 접근, 문화적 접근 및 번역 전략분석, 교육학적 접근, 오역사례 분석의 6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2. 연구에 대한 연구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국내 번역학 분야 연구동향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개념적 접근으로 연구에 대한 정량적 분석보다는 이론, 역사, 개념으로서의 번역학 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 국내 연구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의 전반적인 번역학 연구 동향을 개괄한 김지원(2000), 국내 번역학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 유명우(2000), 한자와 한글 사용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개화기 이후 번역 및 번역론, 번역현황을 개괄한 김지원(2007), 한국의 번역사 시대 구분에 있어 번역의 개념과 번역학 연구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진 김정우(2008), 한국 번역학사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최초 국내 번역관련 논문 및 학위 논문 등에 대해 논의한 이영훈(2013)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논의는 정량적인 수치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나 번역학 연구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진전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연구 동향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접근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계량서지학적 접근(bibliometrics)을 채용한 연구이다. 계량서지학적 접근은 개별 연구자와 같은 미시적 수준부터 기관, 나아가 국가나 지역 등 거시적 수준에서 한 학문분야의 현재 상황과 진화를 보여주며(Gauthier 1998: 9), 주로 발간 논문 수, 인용 분석, 키워드, 공동저자 등 네트워크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 해외에서는 회의통역 분야 연구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회의 통역 연구의 추이를 조망하거나(Gile 2000), 인용 분석을 통해 통번역학 분야의 다학제성을 살피는 연구(Gile 2005), 국제학술지 『Target』 게재 논문의 국가별 분포 및 저자의 성별 등을 분석한 연구(Toury 2009)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서지정보를 기반으로 계량적으로 통번역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홈즈(Homes)의 번역학 체계에 따라 『번역학 연구』 및 『통번역 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분류한 김정우(2005),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국내문헌 인용에 대해 고찰한 최희섭(2007), 윌리엄스와 체스터만의 주제 분류를 기준으로 193편의 국내 통번역학 연구를 12개 연구 영역으로 분석한 이항(2011), 국내 및 해외 학술지를 대상으로 주제, 연구방법론, 지역별 투고 현황 등을 분석한 정호정(2013), 국내 논문 683편을 대상으로 통역과 번역에 대해 각각 세부적인 연구

주제를 분류한 김혜림(2013)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번역학 분야 특정 하위 주제에 대한 연구 동향을 살핀 경우는 교육내용, 수업방법, 번역 평가를 중심으로 국제 저널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의 번역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신지선(2013), 뢰헤커(Pöchhacker 2004)의 다섯 가지 패러다임을 차용해 국내 통역 연구의 패러다임을 분석한 원종화(2015), 코퍼스 기반 연구와 관련해 코퍼스의 정의와 속성, 분석방법, 대표성과 신뢰도, 코퍼스 구축 실행에 대해 국내 30편, 해외 58편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최희경(2015), 그리고 본 연구의 관심 주제인 영상번역 연구에 대한 학술지 논문 82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장르, 언어, 영상번역 방식 현황 등을 연구한 조성은(2014)이 대표적이다.

한편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찰도 이루어진바 있다. 정연일(2005)은 번역학 분야에서 경험적 연구란 무엇인가를 논의하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경험적 연구의 함의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향(2013)은 경험적 연구와 개념적 연구의 이분법을 벗어난 방법론적 전환(이향 2013: 159)을 제안하며 번역학 학문에 대한 메타 담론 활성화를 강조한다. 이소희(2014)는 통역 연구에 있어 관찰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실제 관찰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처럼 연구방법에 대한 개념적 논의 외에 연구방법을 독립적인 주제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정호정(2013: 241)은 국내외 학술지 논문의 연구주제를 분석하면서 연구 방법에 대한 분류표를 제시한 바 있다. 분류표는 상세기술, 자료 분석 및 제시, 버전비교 및 사례 연구, 문헌연구, 설문 및 면접, 코퍼스 분석, TAP 및 실험 또는 통계, 언어학적, 신방법 및 메타 담론이라는 9개 대분류 아래 총 25가지의 하위 연구 방법론 항목으로 나뉘고 매우 세분화되어 다양한 통번역 연구의 방법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양적 및 질적 연구 혹은 실험, 조사, 관찰 등 일반적인 연구 방법론의 구분이 대분류로 제시되지 않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일부 항목간 층위가 동일하지 않거나 중첩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김혜림(2013) 역시 국내 통번역학 연구 동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분류도 제시한바 있다. 사례분석, 문헌연구, 고찰연구, 기술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중복으로 나누어 개괄적인 연구 방법론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영상번역 연구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조성은(2014)은 영상번역 연구 주제를 주로 분

석하였으나, 코퍼스 연구 확대 및 이를 통한 영상번역 규범 모색 연구의 필요성을 연구방법론 차원에서 언급한 바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다양한 시각에서 국내 번역학 연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연구모델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로 어떤 주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영상번역과 같이 이미 연구가 상당수 진행된 분야의 경우 향후 연구에 있어 다양한 연구 주제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모델의 현황을 파악한다면 향후 보다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분석들

본 연구는 영상번역 연구에서 어떠한 연구모델을 채용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번역학 연구에서 연구모델은 상당한 중요성을 가진다. 과학과 철학은 동일한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통해 보다 탄탄한 진리 추구가 가능해진다(김구 2011: 51). 번역학의 경우 철학적 사유를 통한 연구와 과학적 지식 획득의 방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공존하며 이는 번역학의 다학제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²⁾. 과학적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떠한 체계적 방법을 통해 자료 혹은 사유의 근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즉 연구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연구방법은 사회 현상을 분석·설명·예측하는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제반 규칙과 절차를 뜻하며, 사회 현상으로부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질서를 찾아내야 하므로 공유된 기법과 도구를 만들어 놓고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정현욱 2012: 12-13). 번역학은 연구 주제에 따라 사회현상에 대한 탐

2) 철학적 사유를 기반으로 한 연구도 다수 있는 만큼 번역학 연구를 과학적 연구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을 수 있으나, 과학적 연구라고 해서 실험적 연구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체계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결론을 내리는 질적 연구도 과학적 연구에 속한다는 점(김구 2011: 9), 비과학적 지식 획득의 방법인 권위, 전통, 신, 직관이 번역학 연구의 주된 방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번역학 연구는 본질적으로 과학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텍스트 현상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연구모델을 중심으로 영상번역 연구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그로트얀(Grotjahn 1987)의 외국어 학습 연구에 대한 연구 설계 모델이다. 일반적인 사회과학 연구 설계가 번역학 연구에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미 존재하는 텍스트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번역학 연구의 방식을 고려하면 외국어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한 그로트얀의 연구 설계 유형이 보다 유관성이 높을 것이다. 그로트얀의 모델은 사회과학에서 연구를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로 구분하는 것이 외국어 관련 연구에서는 특히 과잉 단순화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의 성격을 고려한다(Nunan 1992: 7).

〈표 1〉 그로트얀의 연구 설계 모델³⁾

순수형태	설명적·해석적: 비실험 설계, 질적 자료, 해석적 분석	혼합형태	실험적·질적·해석적: 실험 혹은 준 실험설계, 질적자료, 해석적 분석
			실험적·질적·통계적: 실험 혹은 준 실험설계, 질적자료, 통계적분석
			설명적·질적·통계적: 비실험설계, 질적자료, 통계적 분석
	분석적·법칙적: 실험 혹은 준 실험 설계, 양적 자료, 통계적 분석		
	설명적·양적·통계적: 비실험설계, 양적 자료, 통계적분석		
	설명적·양적·해석적: 비실험 설계, 양적 자료, 해석적 분석		
			실험적·양적·해석적: 실험 혹은 준 실험 설계, 양적 자료, 해석적 분석

이 모델은 크게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여 연구에 활용하는 분석적·법칙적 연구와 존재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설명적·해석적 연구로 나눈다. 흔히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분류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3) 외국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 표는 누난(Nunan 1992)의 한미란, 이정민 역(2009) 『외국어학습연구방법론』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하였다.

자연과학 혹은 사회과학과는 상이한 외국어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외에 6 가지 혼합된 형태의 연구 설계 역시 제시되고 있다. 실험을 통해 양적 자료가 아닌 질적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해석하는 연구라거나, 반대로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양적 자료로 가공하여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등이다. 물론 누난(1992: 10)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주로 순수형태에 해당하는 연구 설계가 많으며 혼합형 연구 설계 중에는 실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것도 존재한다.

또 다른 연구모델로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체스터만 (Chesterman 2000)의 번역학 연구모델을 기반으로 페레즈 곤잘레스 (Pérez-González 2014)가 제시한 영상번역 연구의 모델이다. 곤잘레스의 모델은 무엇보다 영상번역 분야의 다양한 연구모델이 종합되어 있으므로 의미가 깊다. 체스터만(2000)에 따르면 이론이란 특정한 것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관점을 제공하는 일련의 개념이며 모델은 사물이나 연구를 표상할 수 있는 일차적 혹은 이론화 이전의 방식이다. 페레즈 곤잘레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영상번역의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완전한 이론이 영상번역 연구 분야에서 발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하고(Pérez-González 2014), 체스터만이 제시한 3가지 번역학 연구모델을 기반으로 영상번역 연구 분야의 연구모델을 제시하였다. 체스터만의 연구모델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페레즈 곤잘레스의 영상번역 연구모델

과정 모델 (process)	심리언어학적 (psycholinguistic) 모델
	인지 (cognitive) 모델
	신경언어 및 화용 기반 (neurolinguistic & pragmatics-based) 모델
비교 모델 (comparative)	변이 기반 (shift-based) 모델
	코퍼스 중심 (corpus-driven) 모델
인과 모델 (causal)	시스템 및 규범 기반 (system & norm-based approaches) 접근
	담화 및 이데올로기 (discourse & ideological) 모델

체스터만(2000)에 따르면 과정 모델은 번역 과정의 다양한 단계를 조망하기 위한 것이고, 비교 모델은 번역 결과물을 대상으로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의 유사점 혹은 차이점을 논의하며, 인과 모델은 여러 요소가 도착텍스트 생산에

끼치는 영향 및 도착텍스트가 독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페레즈 곤잘레스는 보다 세분화된 영상번역 연구모형을 제시하며 각 모델을 채용한 영상번역 연구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과정 모델의 하위 범주인 심리언어학적 모델은 시공간적 제약 아래 언어적 정보가 재조합되어야 하는 영상물에서 자막은 사전에 조합된 구조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객이 이를 인지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어떤 방식으로 자막을 나누는 것이 관객이 효과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과정 모델의 또 다른 하위 범주인 인지 모델은 관객이 시각적으로 복잡한 사물을 인지할 때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인지하기 때문에 각 부분을 합한 것의 의미보다 하나의 사물이 전체로써 갖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어떤 이미지가 관객의 마음속에 두드러지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연구한다. 과정 모델의 마지막 하위범주인 신경언어 및 화용 기반 모델은 감각 자극, 언어, 뇌 활동 등 신경언어학의 연구를 기반으로 영상뿐 아니라 소리가 특정 영상물의 내용 이해나 관객이 수용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지며, 더불어 화용적 관점에서 관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지식이 영상물의 함축된 의미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역시 이루어진다.

비교 모델의 두 하위 항목 중 하나인 변이 기반 모델은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를 비교하며 어떠한 변이가 발생하는지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전략의 종류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번역 교육법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변이 기반 모델은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적 변이에서 출발텍스트 생산과 도착텍스트 수용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차이도 변이로 이해되기 시작했고 번역자의 선호, 텍스트 관습 등도 변이를 유발하는 요소로 인식한다. 비교 모델의 다른 하위 항목인 코퍼스 중심 모델은 변이 중심의 비교 모델이 특정 출발텍스트와 특정 도착텍스트간의 차이만을 다루고 있어 발생하는 아쉬움을 다수의 텍스트 모음인 코퍼스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과관계 모델은 체스터만(2000)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과정 및 비교 모델과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번역 과정의 단계가 인과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출발텍스트 대비 도착텍스트의 상이성을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인과관계에 보다 중점을 둔 하위 항목의 모델로 페레즈 곤잘레스는 시스템 및 규범 기반의 접근과 담화 및 이데올로기 모델을 제시

하고 있다. 시스템 및 규범 기반 접근은 영상번역이 출발텍스트 중심 혹은 도착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 이를 번역을 둘러싼 시스템을 근간으로 설명한다. 영상번역에서 헐리웃 영화의 독식 혹은 유럽 지역의 더빙 우세 현상 역시 시스템 차원에서 설명된다. 한편 담화 및 이데올로기 모델은 어휘나 대사 단위의 등가에서 벗어나 영상번역이 전체 담화에 가져오는 변화에 주목한다. 영상번역에서 발생하는 담화의 변화가 특히 비주류의 가치나 목소리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이데올로기 차원의 연구도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번역자의 자체 검열이나 젠더 등을 주제로 한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그로트만의 모델은 외국어 연구를 다룬다는 점에서, 페레즈 곤잘레스의 모델은 영상번역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 영상번역 연구모델과의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4.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분석 대상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사이트에서 2016년 3월 27일 현재 영상번역, 자막, 더빙, 미디어번역을 검색어로 하여 수집하였다. 검색은 키워드에 국한할 경우 연구자에 따라 키워드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좁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Xu 2015: 286) 전체를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검색한 대다수의 논문은 RISS에서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으나, 일부 저자가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방문하여 실물 논문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석사 논문 55건과 박사 논문 11건으로 총 66건의 석·박사 논문을 수집하였고⁴⁾, 이 중 RISS사이트 혹은

4) 영상번역, 자막, 더빙, 미디어번역을 검색하면 각 검색어 별로 다수의 학위논문이 검색된다. 그 중 상당수는 4개 검색어에서 모두 검색되어 이러한 중복 논문은 한 건으로 처리하였고, 영상번역과 무관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영상번역’을 검색어로 하면 205건이 검색되는데, 그 중 『셰익스피어 햄릿 번역의 전환연구』(이은정 2005)과 같이 영상 번역에 대한 논문이 아니거나 『한류영상이미지가 기대심리를 매개로 촬영지 방문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근우 2014)와 같이 영상과 관련 있으나 번역과는 무관한 논문 등이 함께 검색된다. 이러한 논문을 모두 제외한 후 순수하게 번역의 관점에서 영상번역을 다룬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3편에 대해서는 기본 정보 분석 중 연도별, 기관별, 전공별 분석에는 포함하였으나 연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⁵⁾.

각 논문에 대해 먼저 제목, 저자, 기관, 전공, 연도, 분석텍스트 장르, 모드, 분석 데이터 규모 등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페레즈 곤잘레스(2014)와 그로트얀(1987)의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연구모델을 채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5. 분석

5.1 기본 정보

영상번역을 연구한 석·박사 논문 66편의 발간 연도별 추이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2003년 신미현의 석사논문 『불·한 영화 자막에 있어 화행을 고려한 축역의 중요성』과 2006년 이다현의 박사 논문 『영상번역을 위한 함축성 연구』를 시작으로 영상번역 관련 석·박사 논문은 등락을 거듭하며 증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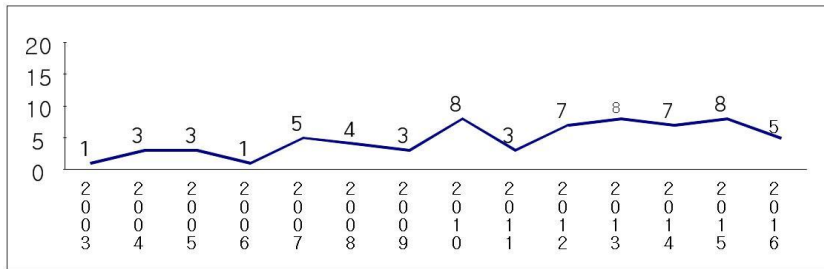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추이⁶⁾

이중 박사 논문은 2006년 1편, 2007년 1편, 2008년 2편, 2010년 1편, 2012

5) 분석에서 제외된 논문은 김세미 (2015) 『영상번역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번역』, 김연주 (2016) 『권력과 서법체계: 한국 영상 영화 자막 번역』, 이민정 (2008) 『韓流 映畫의 中文 翻譯 技法 研究: 映畫 『엽기적인 그녀』를 中心으로』이다.

6) 본 논문에 포함된 그림의 y축은 모두 논문 편수이다.

년 1편, 2013년 1편, 2014년 2편, 2015년 2편, 2016년 2편으로 전반적으로 박사 논문보다는 석사 논문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1편의 석·박사 논문이 발간된 학교는 전북대, 상명대, 경남대, 아주대, 이화여대, 한국방송통신대, 전주대, 대구카톨릭대 7곳이며, 5편 이상의 논문이 발간된 곳은 동국대, 숙명여대, 부산대, 부산외대이며 이 중 부산외대의 경우 14편의 논문이 배출되어 영상번역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

연구자의 전공별로는 어학 및 어문, 그리고 번역학 전공이 대다수였지만 중국어 교육, 중국 언어와 문화학, 국어학, 실용영어학, 문예창작, 한국어 교육학, 국어국문학 전공도 각 1건으로 전체 66편 중 10.6%에 해당하는 논문이 번역학 이외의 전공에서 연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상번역이 번역이라는 관점 외에 문화 중개, 언어교육 등 다양한 차원에서 관심대상이 됨을 보여준다.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3편의 논문을 제외한 63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조합⁷⁾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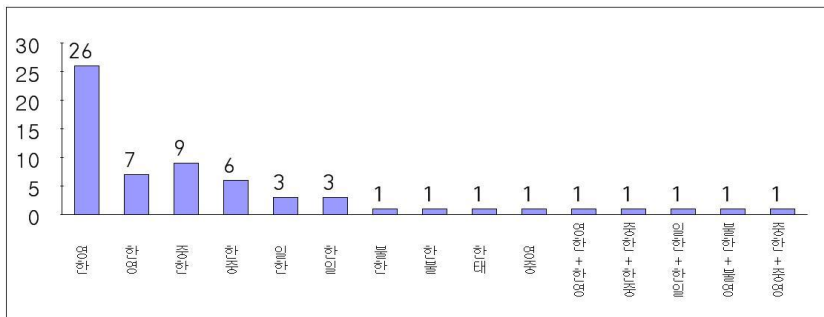


그림 2 언어조합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영한 조합의 연구가 26편으로 가장 많았고, 중한 조합이 9편, 한영 조합이 7편, 한중 조합이 6편, 일한 조합과 한일 조합이 각 3편씩이었다. 한국어와 태국어, 영어와 중국어 조합에 대한 연구도 각 1편이 존

7) 물론 번역을 둘러싼 시스템이나 행위자 등 특정 언어조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연구도 있으나, 전반적인 언어별 연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언어조합을 파악해보았다. 『더빙 번역에 영향을 주는 연출가의 역할』(최수연 2010)과 같이 행위자가 주제인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언어조합이 있으므로 이를 수집하였다.

재하고 두 개 언어를 함께 다루는 연구도 5편이 확인되었다. 영어나 일어 대비 한중, 중한, 중영 등 중국어가 포함된 연구와 한국어와 태국어 조합의 연구 등은 해당 외국어의 모국어 화자가 연구자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의 모드를 살펴보면 더빙 연구가 3편, 자막과 더빙 두 가지를 모두 연구한 경우가 6편, 자막 연구가 52편으로 영상의 자막번역에 대한 연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 영상번역 시장이 자막위주인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럽다 볼 수 있다. 한편 더빙 혹은 자막으로 분석 대상 텍스트 모드를 분류하기 어려운 연구도 일부 존재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텍스트의 장르는 영화가 40건, 드라마 16건,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분석한 연구가 3건, 소설과 영화를 비교한 연구가 1건, 그 외에 TED, 뉴스, 뮤직비디오에 대한 연구도 각 1편씩으로 주로 영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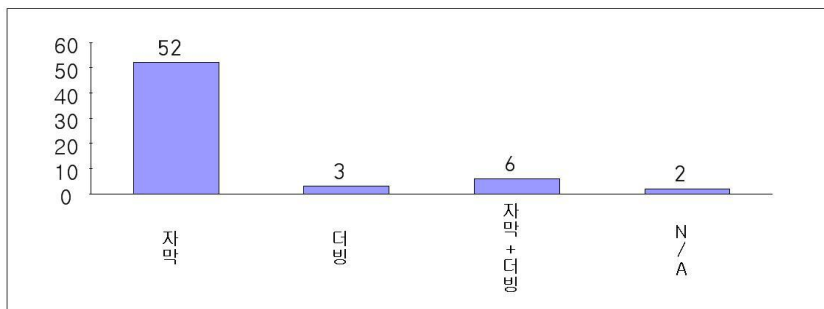


그림 3 분석텍스트 모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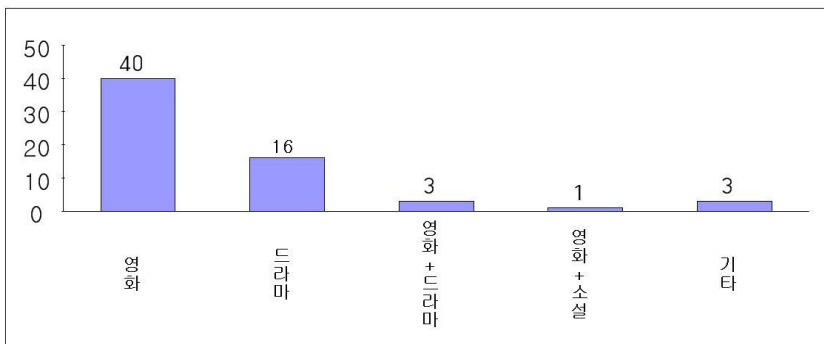


그림 4 분석텍스트 장르

영상번역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데이터의 규모는 객관적으로 파악이 불가능했다. 다수의 연구가 편수를 기준으로 분석 데이터 규모를 기술하고 있으나 영상물마다 시간(running time)이 다르며, 편수가 아닌 자막수, 대본 페이지 등 상이한 기준을 가지고 텍스트의 분량을 밝히는 연구도 다수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4편, 477분, 자막수 6,985개, 발화수 5,788개와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이터의 규모를 기술하기도(김은아 2016)⁸⁾ 하지만, 분석 텍스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도 다수 존재했다. 특히 드라마를 분석한 연구의 경우 드라마 제목만 언급하고 해당 드라마 몇 회에 대해 총 몇 분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5.2 연구모델

5.2.1 그로트안의 연구 설계 모델

경우에 따라 복수의 연구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복수의 연구 설계와 그에 따른 모델을 채택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63편의 석·박사 논문이지만 70개의 설계 유형 및 모델이 관찰되었다. 먼저 그로트안(1987)의 연구 설계 유형에 따라 영상번역 석·박사 논문을 분석한 결과 설명·해석적 연구 설계가 55건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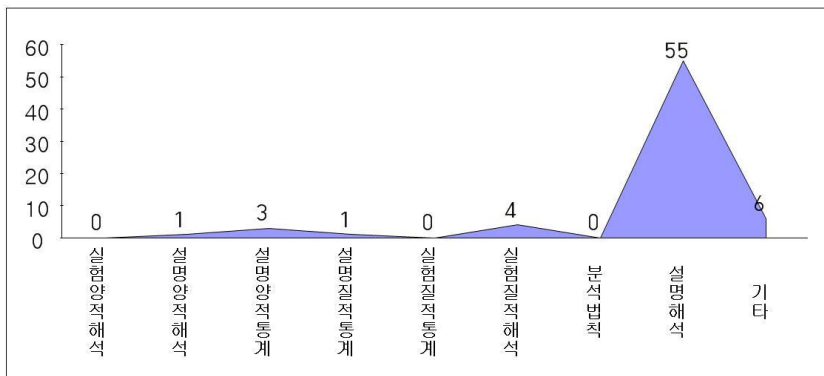


그림 5 연구 설계

8) 본 논문 중 분석한 석·박사 학위논문의 서지 정보는 참고 문헌 하단의 분석대상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분석을 주로 하는 번역학 연구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번역행위 혹은 번역 결과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미 번역된 텍스트를 분석하므로 설명·해석적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번역학 연구 전반에서는 가상의 상황에서 번역을 생산하도록 하는 등의 연구 설계도 찾아 볼 수 있으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살펴본 영상번역 연구는 이미 생산되어 있는 자막 혹은 더빙 등을 분석하거나, 혹은 영상번역의 생산 과정 등 이미 존재하는 현상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⁹⁾.

텍스트 분석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가 아닌 연구를 위해 자료를 생산하는 사례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K-Pop 번역 양상 연구: 번역 주체와 전략을 중심으로』(김민지 2016)¹⁰⁾의 경우 k-pop 가사의 생산 주체별 번역 전략과 실제 번역 과정, 주체별 번역 전략을 파악하는 복수의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가사번역을 분석하는 것 외에 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연구자가 해석하는 방식의 연구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동일한 설명적 연구라 하더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양적 자료를 취합한 후 통계적 분석을 하는 등의 설명·양적·통계적 연구 설계도 일부 존재하였다. 영화자막을 대상으로 자막의 축소현상의 보편성 여부를 확인한 『영화장르별 자막번역의 양적변화 연구』(장민호 2008)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영화자막을 데이터로 수집하였으므로 설명적 연구에 해당하지만, 그 데이터를 등가달성여부와 같은 질적 관점이 아닌 단어수, 음절수, 글자수 등을 기준으로 양적 데이터화 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처럼 연구 설계 유형 면에서 국내 영상번역 연구는 별도의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보다는 존재하는 영상물의 번역을 데이터로 삼아 분석을 진행하는 연구가 절대 다수를 이루었다. 또한 데이터를 양적 데이터로 가공하기 보다는 질적 데이터로 활용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연구 설계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외국어 연구와는 상이한 번역학 연구의 특성 때문에 그로트만(1987)

9) 이는 비단 학위논문에서뿐 아니라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에도 흡사하다.
10) 이 연구의 제목은 영상번역과의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지만 대상 텍스트는 소리와 영상이 텍스트(가사)와 공존하는 다기호성을 보이며 가사에 대한 자막번역을 분석하였다.

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타로 분류한 연구 설계는 대안번역¹¹⁾이다. 자막이나 더빙에 대해 연구자가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번역품질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영상물을 연구자가 전편 번역하여 제시하는 연구도 찾아 볼 수 있었다. 뚜리(Toury)의 규범을 기반으로 영상번역의 규범을 논의한 후 연구자가 파악한 영상 번역 규범을 적용하여 한편의 영화를 번역하거나(김미정 2005), 여러 가지 화용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영화를 대상으로 번역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짚은 후 이를 반영하여 연구자가 다시 번역하는 등(김지영 2007)이 그 예이다.

누난(1992: 10)이 언급한 바와 같이 양대축에 해당하는 설명·해석적 연구 설계와 분석·법칙적 연구 설계 외에 이 두 가지를 혼합한 형태의 연구 설계가 모두 빈도 높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 연구 설계 유형에 집중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영상번역 연구가 이미 번역된 번역 결과물을 절대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으며,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번역의 과정, 참여자 등에 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적은 편이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5.2.2 곤잘레스의 연구모델

페레즈 곤잘레스(2014)의 영상번역 연구모델 분류에 따라 국내 영상번역 석·박사 논문을 분류한 결과는 아래 그림 7과 같다.

11) 본 논문에서 대안번역은 이미 존재하는 번역에 대한 대안의 번역을 제시하는 것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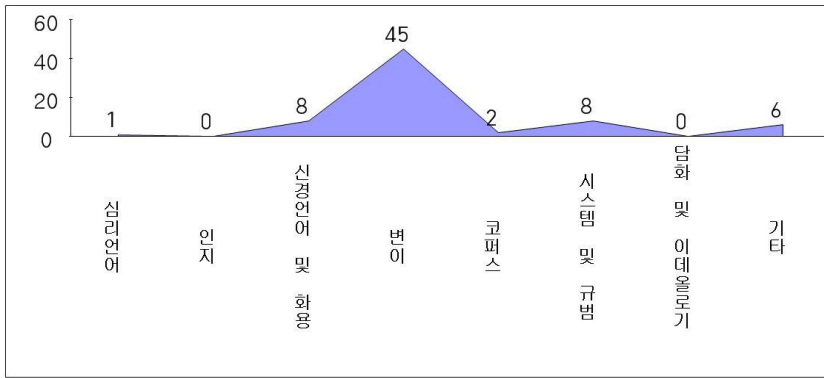


그림 6 연구모델

연구 설계 유형과 마찬가지로 일부 연구모델에 집중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페레즈 곤잘레스의 모델에서는 신경언어 및 화용적 연구가 하나의 범주로 묶여 있지만 이 범주에 속하는 국내 석·박사 연구는 화용의 관점에서 영상번역을 분석하고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단위화행, 화행구조 등 화행을 여러 층위로 나누어 해당 화행이 반영된 영상번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그라이스(Grice)의 함축 이론을 기반으로 함축성을 연구하고, 관련성 이론을 적용하여 영상번역을 설명하는 등의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시스템 및 규범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의 영상번역이 출발어의 맹목적인 문화주입 형태의 번역이라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영한 영상번역은 출발어의 문화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도착어인 한국어 문화를 하대하는 의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문화소에 대한 영상번역을 연구한 사례(홍유미 2005), 영상번역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를 거시적으로 기술한 연구(최수연 2016) 등이 대표적이다.

코퍼스 중심 연구는 사실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연구모델이다. 페레즈 곤잘레스 역시 변이 기반 연구모델과 사실상 같으나 다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분석이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 다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단순히 다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혹은 Antconc나 paraconc 등 코퍼스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코퍼스 중심 연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퍼스 연구

용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데이터의 규모와 데이터의 정량적 보고가 연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코퍼스 기반 연구로 분류하였고, 이러한 기준에서는 총 120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영화장르별 자막번역의 양적변화를 연구한 장민호(2008)와 한국어 리메이크 드라마 1,250분과 이에 대한 일본어 더빙텍스트1,250분, 한국영화 8편과 이에 대한 일본어 더빙영화 8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최소영(2014)의 연구가 코퍼스 기반 연구에 속했다. 물론 양적변화에 대한 연구의 경우 120편의 전체를 모두 분석 코퍼스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각 영화에서 10분씩 발췌하였으나, 대다수의 영상번역 연구가 10편 이하의 영상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일부 여러 편의 영상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언어유희, 문화소, 비속어 등과 같은 특정 단위만을 데이터로 삼았기 때문에 편수는 많지만 데이터 세트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코퍼스 구축 및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겠으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프로그램 등도 광의의 코퍼스 도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전문 소프트웨어 사용만으로 코퍼스 기반 연구모델의 여부를 기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 외에 페레즈 곤잘레스의 모델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나 국내 영상번역 석·박사 연구에서 관찰되는 연구모델은 대안 번역제시이다. 앞서 논의한 연구 설계 유형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자가 영상번역의 특징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 후 특정 영상텍스트를 번역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6편이 관찰되었다.

가장 많은 연구가 채용한 변이 기반 연구모델은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를 비교하여 차이를 밝히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 번역학에서 텍스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많은 만큼 영상번역에서도 변이 기반 연구모델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변이 기반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만을 대상으로 무엇을 비교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이러한 연구모델이 채용된 것인지 살펴보면 그림 7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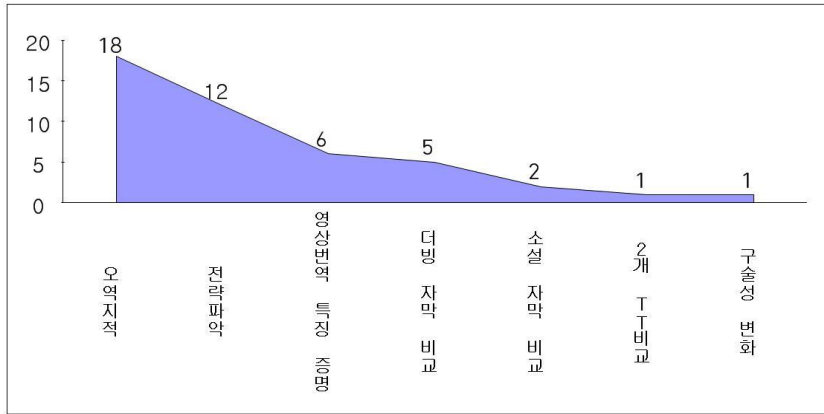


그림 7 변이 기반 연구모델 상세

변이 기반의 연구모델을 채택한 45건의 연구는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를 비교하여 오역을 지적하거나, 영상번역의 전략을 파악하거나, 영상텍스트의 다기호성을 번역하는 영상번역의 특징을 확인하는 등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7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오역, 즉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 간의 언어적 변이를 관찰하는 연구가 많고, 전략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12편 중 문화적 지시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6편으로 영상 번역에서 어려움을 주는 여러 대상 중 문화적 지시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하나의 출발텍스트에 대한 더빙과 자막을 상호 비교하여 더빙과 자막의 특징을 설명하거나 소설과 자막을 비교하며 자막번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연구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연구 역시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 간의 변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와 마찬가지로 영상텍스트의 다기호성, 자막 혹은 더빙이 가진 기술적 제약 등을 반영하여 영상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설명·해석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 설계 유형과 마찬가지로 연구모델 역시 변이기반 모델을 중심의 쏠림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번역학 연구에서는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가 존재하는 만큼 변이기반 모델의 활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페레즈 곤잘레스(2014)의 모델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연구모델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6. 논의

영상번역 학위논문은 2003년을 기점으로 지난 13년간 연평균 4.7편으로, 조성은(2014)에서 연구된 학술지 논문까지 고려하면 관심사가 집중되는 번역학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석·박사 학위논문 중 10.6%는 번역학 이외 전공자의 연구로 번역학 외 전공에서도 영상번역이 매력적인 연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 비해 영상번역의 연구는 다양성을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 조합에서 영한번역을 필두로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영상번역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모델 측면에서도 존재하는 번역을 연구자가 질적으로 해석하는 설명·해석적 연구와 출발텍스트 대비 도착텍스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변이 중심 연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내 영상번역 연구모델과 관련한 몇 가지 점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첫째, 연구모델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상번역 연구모델은 살펴본 바와 같이 쏠림 현상을 보인다. 물론 주제에 따라 특정 설계나 모델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텍스트간의 관계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만큼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간 변이를 비교 하며 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는 것은 일면 당연하다. 다만, 페레즈 곤잘레스의 연구모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외 영상번역 연구에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모델이 채용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추후 연구모델의 다양성 도모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번역된 결과물인 자막 혹은 더빙을 대상으로 하는 결과 중심 연구 외에 수용자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해석하는지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 수용자의 반응 체계 중심으로 연구하는 등 기존에 활용하지 않은 방식의 연구모델 활용을 통해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 질 수 있겠다.

둘째, 영상번역 연구 주제 및 연구 목적의 확장이 필요하다. 연구 설계나 모델이 편중되는 배경에는 보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연구의 목적이 특정 부분에 치중에 있다는 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출발텍스트와 도착텍스트 간의 변이 뿐 아니라 출발문화와 도착문화간의 사회문화적 변이, 혹은 하나의 출발텍

스트에 대한 복수의 도착텍스트가 보여주는 변이를 번역자라는 행위자의 영향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면 동일한 변이 기반 연구 모델이라 하더라도 좀 더 다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략 혹은 영상번역의 특징을 파악을 위한 연구 역시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동일하게 전략이나 영상번역의 특징을 연구하더라도 기존에 다루지 않은 특정 단위로 관심사를 확장하거나, 수용자 반응 확인을 통한 전략의 논의 등 주제나 목적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영상번역 연구에서 번역 결과물 뿐 아니라 결과물을 생산해 내는 과정, 과정 속의 행위자, 자막 스타핑과 같은 기술적 사안, 영상번역을 발주하는 방송국 시스템 등 텍스트간의 관계를 벗어난 주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보다 확장된 연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코퍼스의 활용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많은 번역학 연구 분야에서 코퍼스의 중요성 혹은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특히 영상번역 분야는 코퍼스 활용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영상번역은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번역자가 비가시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수의 영상물을 분석하여 전략을 제시하거나 규범을 도출해내는 것은 특정 번역자의 번역 양상일 수 있고 혹은 품질이 낮은 번역물을 기반으로 전략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영상번역은 일종의 소비재로 특정 시공간에서 대중이 소비하는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예를 들어 영상물 속 유머를 번역하는 방식은 문학작품 속 유머를 번역하는 것과 달리 주요 관객층이 이해하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해당 시기의 유머를 사용하는 것 같은 양상을 종종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코퍼스, 특히 가능하다면 빅데이터와 같이 유동적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다량의 코퍼스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영상번역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영상번역 연구는 주로 외국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 중 절대 다수가 영한번역이다. 물론 국내 영화시장에서 외국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반대로 해외 시장에서 한국 영화 혹은 드라마의 인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영미권 시장 외에 아시아권 시장에서 한국의 영상물이 큰 인기를 얻고 소비가

되고 있음에도 영상번역 연구는 절대적으로 영어 중심이며 중국어 및 일본어 연구가 일부 있을 뿐 여타 외국어로의 영상번역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의 영상번역 연구는 많은 경우 외국인인 연구자가 모국어 화자로서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의 영상물을 평가하는 방식의 연구가 많다. 이러한 연구 역시 상당 부분 의미가 있겠으나, 실제 한국 영상물의 번역된 자막 혹은 더빙을 접할 외국인 관객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한국 내에서 수학 중인 연구자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코퍼스, 수용자 반응을 비롯한 수용자 차원의 연구를 통해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영상번역의 품질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상번역 연구를 돌아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국내 영상번역 연구가 10여 년의 기간 동안 활발히 이루어져왔고, 그 과정에서 영상물이 가진 특징, 영상번역의 여러 모드에 대한 비교, 특정 영상물을 중심으로 이론의 확인, 특정 영상물을 사례로 하여 영상번역의 전략을 확인하는 등 영상번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토대를 닦았다는 점이다. 영상번역에 대한 관심을 갖는 연구자가 늘어나고 영상번역 연구에 대한 기본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된 지금은 영화학, 사회학, 기호학, 소비자 행동학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과 번역학 관점을 함께 아우르는 다학제적인 접근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구 (2011)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의 접근: 사회과학 연구조사 방법론의 이해』, 서울: 비엔엠북스.
- 김세미 (2015) 『영상번역에서 비언어적 요소의 번역』,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연주 (2016) 『권력과 서법체계 : 한국 영상 영화 자막 번역』,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6(2): 29-57.
- _____ (2008) 「한국 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연구』 9(1): 29-69.
-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 1(1): 9-31.
- _____ (2007) 「전망을 위한 한국 번역사 재조명」, 『동서비교문학저널』 17:

117-141.

-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 신지선 (2013) 「번역교육 관련 연구동향 및 연구과제 고찰-교육내용, 수업방법, 평가 방식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5(2): 131-150
- 원종화 (2015) 「국내 통역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연구 패러다임 변화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6(1): 35-64.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248.
- 이민정 (2008) 『韓流 映畵의 中文 翻譯 技法 研究: 映畵 『엽기적인 그녀』를 中心으로』,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2014) 「통역연구방법론과 과제-실증연구 방법론 및 관찰연구사례 논문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12(1): 109-134.
- 이영훈 (2013) 「한국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번역학연구』 14(2): 187-222.
- 이향 (2011) 「국내 번역학 연구 경향에 관한 일고찰: 통번역 연구 게재 논문의 분류를 중심으로」, 『통번역학 연구』 15: 341-362.
- _____ (2013) 「번역학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연구방법론적 전환의 필요성」, 『통역과 번역』 15(1): 145-162.
- 정연일 (2005) 「최근의 번역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일 고찰」, 『통역번역연구소 논문집』 9: 97-115.
- 정현욱 (2012)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서울: 시간의 물레.
- 정호정 (2013)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 동향 1999년 이후 국내외 대표 학술지 분석」, 『통역과 번역』 15(1): 235-256.
- 조성은 (2014) 「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 『번역학연구』 15(2): 205-224.
- 최희경 (2015)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연구 - 국내외 연구 동향과 과제」, 『번역학연구』 16(2): 317-338.
- 최희섭 (2007) 「『번역학연구』의 현황과 국내문헌 인용 고찰」, 『번역학연구』 8(1): 323-345.
- 한미란, 이정민, 윤희 (2009) 『외국어학습연구방법론』, 서울: 한국문화사
- Chesterman, Andrew (2000) 'A Causal Model for Translation Studies', In

- Maeve Olohan (ed.) *Intercultural Faultline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15-27.
- Gauthier, Éline (1998) 'Bibliometric Analysi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Science and Technology Redesign Project, Available at <http://www.publications.gc.ca/Collection/Statcan/88F0006X/88F0006XIE1998008.pdf>
- Gile, Daniel (2000) 'The History of Research Into Conference Interpreting: A Scientometric Approach', *Target* 12(2): 297 - 321.
- _____ (2005) 'Citation Patterns in the T & I Didactics Literature', *Forum* 3: 85-103.
- Grotjan, (1987) 'On the Methodological Basis of Introspective Methods', In Claus Faerch & Gabriele Kasper (eds.), *Introspection in Second Language Research*,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54-81.
- Nunan, David (1992) *Research Methods in Language Learning*,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érez-González, Luis (2014) *Audiovisual Translation: Theories, Methods and Issues*, New York: Routledge.
- Toury, Gideon (2009) 'Incubation, Birth and Growth. Observations of On the First Twenty Years of Target', *Target* 21(2): 189-207.
- Williams, Jenny and Andrew Cesterman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 No Ehampton: St. Jerome Publishing.
- Zanettin, Federico, Saldanha, Gabriela, and Sue-Ann Harding (2015) 'Sketching Landscapes in Translation Studies: A Bibliographic Study', *Perspectives* 23(2): 161-182.
- Xu, Ziyun (2015)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Chinese MA Theses in Interpreting Studies: A Scientometric Survey', *Perspectives* 23(2): 284-304.

분석대상 논문

- 강김(耿金) (2011) 『한·중 영화 번역문 분석 연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화려한 휴가> <패왕별희> <인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준모 (2012) 『영상번역의 특징과 한계: 영한 자막번역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강민 (2004) 『드라마 <<가을동화>>의 중국어 翻譯을 中心으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 (2010) 『한일 영상 자막 번역의 효율적인 방안』,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근이수 (2012) 『한일 자막번역에서의 문화관련어휘 번역전략에 대한 고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중심으로』,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주 (2010) 『장이머우 영화의 한국어자막 고찰: 쥐더우와 추쥐의 재판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2005) 『영상 번역의 기준 연구: 영화 <클로저>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민지 (2016) 『K-Pop 번역 양상 연구: 번역 주체와 전략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희 (2013) 『영상 자막 번역의 특징 연구: 영화 ‘러브레터’를 중심으로』, 부산외대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아 (2009) 『문화를 고려한 영한 영상번역 연구』, 부산외대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2013) 『팬 자막(Fansubs)의 독자 반응 조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현 (2016) 『뮤지컬 애니메이션 노래 번역 전략 고찰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옥진 (2010) 『영상번역의 자막과 더빙의 비교분석』,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령 (2005) 『中國 映像텍스트 翻譯 研究: 中國 映畫를 中心으로』, 부산외대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 (2016) 『발화 분석을 통한 한영 자막의 스파팅 결정 요인 연구 -법정 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2015) 『방송사 자막번역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2007) 『<브로크백 마운틴> 영상 번역 연구: 분석과 실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나래 (2015) 『전문가 자막번역과 팬자막 번역의 비교 연구: <셜록>과 <가십 걸>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민 (2009) 『애니메이션 자막번역 전략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철 (2008) 『영상 번역에서의 축역 현상: 통합적 분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정윤 (2014) 『영화 엽기적인 그녀 한불자막 번역 분석: 팬자막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혜정 (2010) 『연관성 이론에 근거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자막번역 연구: 언어의 경제성 구현 양상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민영 (2013)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자막과 더빙 분석: 자국화 전략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선희 (2013) 『문화적 관점에서 본 한국영화 번역』,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아 (2012) 『적합성 이론을 통한 중-한, 중-영 영화자막번역 전략 연구: 적벽대전 사례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보영 (2007) 『Korean-English media translation: TV subtitles for the sitcom do the right thing』,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숙인 (2015) 『문화와 관객을 고려한 애니메이션 번역: <물란>과 <알라딘>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미현 (2003) 『불·한 영화 자막에 있어 화행을 고려한 축역의 중요성』,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2013) 『TV드라마 <대장금(大長今)>의 중국어 번역 양상 분석』, 계명

- 대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희정 (2009) 『영상번역에서의 언어의 경제성: 영한자막번역을 중심으로』,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미형 (2010) 『언어유희 한영 자막번역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수형 (2010) 『드라마 <포위된 성> 자막 중한번역연구』,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명주 (2011) 『영상번역에서 자막과 더빙번역 비교』,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왕릉운 (2011) 『韓國 映畵의 中國 受容과 翻譯에 考察』,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왕이란 (2012) 『한중 TV드라마 영상 번역에 대한 고찰: 드라마<천사의 유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순봉 (2007) 『영상번역 특징 연구: 오만과 편견을 중심으로』,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다현 (2006) 『영상번역을 위한 함축성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소영 (2015) 『중국 드라마 <后宮甄嬪傳>의 한국어 자막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4) 『중국영화 패왕별희 자막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 (2014) 『웹 2.0 시대의 네티즌 번역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천 (2014) 『적합성 이론에 기초한 영화자막 번역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 영화의 중국어 어휘 번역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효진 (2013) 『소설 및 영화 번역 비교: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중심으로』,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민호 (2008) 『영화장르별 자막번역의 양적변화 연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은주 (2004) 『중국영화 번역 양상 연구: 영화 『男人四十』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구웅 (2012) 『자막번역과 구술성의 재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희 (2007) 『관련성 이론에 근거한 영한 영상번역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영 (2008) 『자막과 더빙 번역 비교 연구: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정 (2014) 『수사의문문의 영한 자막 번역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희정 (2010) 『팬자막(Fansubs)의 특성 연구: 「섹스 앤 더 시티(Sex and the City)」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안나 (2013) 『외화 애니메이션 더빙에 사용된 방언번역 사례분석』,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범 (2015) 『한영 자막 번역과 문화소 번역 전략』,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주형 (2007) 『자막 번역의 특징으로 본 영화 자막 번역의 효율적 방안』, 부산외대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오정 (2015) 『한국영상물의 중국어 자막 번역에 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우 (2015) 『중국 드라마 『황제의 딸(還珠格格)』의 한국어 번역 연구: 문화소번역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릉우 (2014) 『중국 자막번역과 팬서브번역의 비교 분석 『어벤저스』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소영 (2014) 『한일 영상물에 나타난 스피치 레벨과 스피치 레벨 시프트의 번역양상 연구』,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수연 (2010) 『더빙 번역에 영향을 주는 연출가의 역할』,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연 (2016) 『영상번역의 사회학적 연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수 (2013) 『한·일 영화를 통해 본 번역양상 연구: 자막번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타난야 콩씨리 (2014) 『한·태 자막 번역을 통한 언어·문화 비교 연구: 한국 드라마 <미남이시네요>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미선 (2012) 『금기 비속어의 영-한 번역연구: 격식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우 (2012) 『중국영화<落根>의 한국어번역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유미 (2005) 映像翻譯의 올바른 文化 媒介的 機能: 英韓 映像翻譯 作品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Research Models in Audiovisual Translation Research

Oh, Mihyung
(dongguk University)

Translation Studies is now matured to the point where it systematically looks back on what it has achieved and explores the direction in which it needs to go further. Out of efforts to understand the landscape of Translation Studi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research models employed in audiovisual translation(AVT) research papers and identify any potential areas for future research.

While AVT is a fast growing field both for research and practice, its research methodologies, in particular models for analysis, have not been often discussed. This paper adopts two frameworks, Grotjahn(1987) and Pérez-González(2014), to analyze research models in Masters and Doctorial theses on AVT produced in Korea. It finds that research models substantially focus on linguistic shifts between source texts and target texts, and that many of the theses qualitatively interpret data of small quantity to support claims made in them. This paper suggests shifting a focus when selecting research models, exploring into new topics, and utilizing parallel and comparable corpus to strengthen reliability of analysis.

▶ Key Words: audio-visual translation, research methodology, model of analysis, multidisciplinary approach

오미형

동국대학교 영어통번역전공 강의초빙교수

mihyung.oh@gmail.com

관심분야: 영상번역, 통번역교육, 통번역전략

논문투고일: 2016년 7월 29일

심사완료일: 2016년 9월 5일

게재확정일: 2016년 9월 22일